

“참 포도나무”

요 15:1-8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는 가나안의 축복을 상징하는 3대 나무입니다.

그 중,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 가지의 특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이 너무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특이하게 생긴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그 자체로는 볼품이 없습니다. 재목으로 사용할 수도, 그렇다고 마땅한 용도로 사용할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볼품없는 포도나무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 먹는 포도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 15:1)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고,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중에서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분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가지를 정리하는 일일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가지들을 잘라내 주어야 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때문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 15:2)

여기서 열매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간적으로 보기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손해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지치기에 대한 두가지 원칙을 설명합니다.

첫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 버린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신앙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안에는 변화가 없고 그 사람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가 없는 사

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지를 잘라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지치기를 말합니다. 농부들은 멀쩡해 보이는 가지도 싹둑싹둑 잘라 버립니다. 보기에는 아까워 보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두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상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잔가지를 잘라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가지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비롯됩니다. 가지 스스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무가 없다는 것은 가지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역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존재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파리는 그 스스로 대서양을 건너갈 수 없지만, 비행기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대서양을 건널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나 우리의 생명 나무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들려 있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든든히 붙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요?

1.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과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곧 믿는 사람들의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2.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무엇이든 원하는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7)

예수님은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호흡하기 위해서라도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자,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포도나무되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1.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 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

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9-10)

우리가 포도나무되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지만, 주의 사랑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도 사랑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2.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 15:11)

성도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얼굴이 어둡고 찡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샘 솟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 15:16)

방금 전에도 언급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포도나무되신 예수님께 든든히 붙어 있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지에 대해 두가지 원칙을 설명하십니다. 두가지 원칙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2.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3.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설명합니다.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며, 나에게서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요 또, 2019년에는 어떤 열매를 맺기 소망하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